釋讀口訣에 나타난 不定詞의 機能에 대하여*

이 용**

요 약

이 글에서는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부정사가 지니고 있는 기능을 고찰하는 데 관심을 쏟았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다 동사문 부정이 '단순부정'과 '능력부정'으로 나뉜다는 것을 덧붙인 것이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고찰의 결과 우선 석독구결 자료에는 명사문 부정 형식과 동사문 부정 형식에 따라 부정사가 다르게 현토된다는 기존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동사문 부정이 '단순부정'과 '능력부정'으로 나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석독구결 문헌에서 대체적으로 '단순부정'은 '동사+(-尸)+不ᄎ(非ᄎ)'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반면에, '능력부정'은 문헌의 계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우선 『瑜伽師地論』, 『金光明經』에서는 '동사+(-尸)+不ㅅ(未ㅅ)'의 형식으로 실현되었다. 반면, 華嚴經 계통에서는 '不能ㅣ矣'로 나타났다. 혹 '不ㅅ'의 경우에, 이것이 '단순부정'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때는 동사에 '-ㄱ'이

---

* 이 글은 지금은 고인이 된 고정숙 선생이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매학기 벌어지는 대학원생들의 논문 발표회에서 발표했던 논문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이 글의 근간이 되는 아이디어는 고정숙 선생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의 체재나 전개 방식은 전혀 다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결합되어 나타났다.

*핵심어: 부정법, 석독구결, 부정사

1.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한문 부정사와 한문 부정사 각각에 현토된 구결자를 함께 살펴 석독구결 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고찰하는 데 있다. 『舊譯仁王經』의 발견 이래 국어문법사에서는 새로운 사실들이 적지 않게 밝혀진 바 있다. 이 새로운 사실들과 관련하여 부정법에 관해서는 南豊鉉(1976)에 그 변천 과정들이 제시된 바 있다. 여기에서는 15세기 이전의 부정법이 명사문 부정과 용언문 부정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용언문 부정으로 쓰인다고 한 '不多'과 '不ㅅ'이 분류되어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한 바가 없다. 이 글은 주로 이 두 부정사의 기능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석독구결에서 구결자는 격, 시상, 서법 등의 문법 형태소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현토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동사에 현토된 구결자들은 주로 어미와 관련이 있고, 이것들은 원문만 보아서는 그 기능을 파악하기 매우 힘든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부정사에 현토된 구결자들 역시도 기능의 파악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 구결 자료들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한문 원문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시된다. 원문에 대한 파악이 구결자들의 이해에 또한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결국 석독구결 자료에 대한 이해는 한문 원문에 대한 이해와 이 한문 원문에 현토된 구결자에 대한 이해가 상호보완적일 때 가장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다. 석독구결의 부정사에 대한 파악도 이러한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우선 원문을 철저히 파악하여 각각의 문맥 속에서 '非', '不', '未'의 세 부정사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살피기로 한다.[1] 그리고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각의 한문 부정사에 현토된 구결자의 양상을 중심으로 석독구결에 나타나는 부정사의 기능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2]

2. 석독구결 부정사의 기능

2.1. 석독구결 부정사의 확인

석독구결의 부정법에 대한 연구는 南豊鉉(1976)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는 부정법을 15세기와 15세기 이전으로 나누어 다룬 바 있다. 특히 이 논문의 의의는 15세기 이전의 부정법에 대한 논의가 비로소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15세기 이전의 부정법과 관련하여 향찰, 이두, 구결 등 차자표기에 나타나는 부정법의 양상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중에서도 『舊譯仁王經』의 부정법이 '명사문 부정'과 '용언문 부정'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김정아(2001)은 이른바 계사 '이-'를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부정법의 양상에 대해서도 설명한 바 있다. 이 논의에서는 부정법의 양상을 바탕으로 계사 '이-'가 기원적으로는 용언이었을 것으로 추측한 바 있다. 조은주(2001, 2002)에서는 석독구결의 부정법을 정리한 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 논의에서는 그동안 명사문 부정과 용언문 부정에 모두 쓰

1) '非', '不', '未'만을 다루게 되는 것은 이 부정사들만이 석독구결에서 문법적인 부정사로 쓰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본고에서 이용한 석독구결 자료들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 舊譯仁王經 上 - 舊仁, 華嚴經 卷14 - 華嚴, 合部金光明經 卷3 - 金光, 瑜伽師地論 卷20 - 瑜伽, 華嚴經疏 卷35 - 華疏.

이는 것으로 알려졌던 '안ᄃᆞᆨ'이 용언문 부정에만 쓰인다는 것을 밝힌 바가 있기도 하다. 이들 논의에서 다루어진 결과를 먼저 정리하기로 한다.

먼저 김정아(2001)에서 정리한 것을 보기로 한다.

단형 부정(동사, 형용사) 안ᄃᆞᆯ+동사/형용사
명사 부정 명사+안디 ᄒᆡ-
장형 부정(형용사) 형용사-ㄱ+안디 ᄒᆡ-
장형 부정(동사) 동사-ᄆᆞ+안ᄃᆞᆯ ᄋᆞ-, 동사-ᄆᆞ+아니 ᄋᆞ-, 동사-ᄆᆞ+안ᄃᆞᆨ ᄋᆞ-

위에서 정리한 것을 보면, 부정법과 관련하여 두 가지 특징적인 면이 드러난다. 하나는 장형 부정에서는 형용사가 명사문 부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3] 국어에서 형용사는 활용을 하고 어미를 취한다는 점에서 명사보다는 동사에 가까운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동사문 부정의 형식을 취할 것 같은데 명사문 부정 형식을 취하고 있다.[4] 다른 하나는 단형 부정에서는 형용사가 동사문 부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장형 부정에서 형용사가 명사문 부정의 형식을

3) 그런데 '동사-ㄱ+안디'를 형용사 부정이라고 일반화할 때에는 『華嚴經』에 예외적으로 '增ᄉᆞᄅᆞㄱ 不矣-', '滅ᄉᆞᄅᆞㄱ 不矣-'가 나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는 형용사 부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不矣-' 앞에 '-ᄅᆞㄱ'이 나온다는 분포상의 제약은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도 김정아(2001)의 일반화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기는 하지만, 예외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논의를 진행해 나아가기로 한다.

4) 인도유럽어나 우랄어 등에서는 형용사가 격굴절을 보이는 등 명사에 매우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개별언어에 따라서는 형용사가 명사에 가까운 성격을 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동사에 가까운 성격을 띤 경우도 있다고 한다. 현대한국어의 경우는 절대적으로 동사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박진호 선생이 사적인 자리에서 언급한 바 있다.

취하고 있는 것과 대비가 된다.[5]

다음은 조은주(2001)에서 정리한 것이다.

명사문 부정 형식: 명사(구)+不矣(非矣/未矣), 無(无/莫/靡), 無(无)ᄂᆞᆫ-
용언문 부정 형식:
단형부정: 不多+용언
장형부정: 용언+-尸(-ㄱ)+不多(非多), 不ㅅ(未ㅅ), 未ㅣ, 無(无/莫/靡), 無(无)ᄂᆞᆫ-

명사문 부정 형식에 쓰인 '不矣', '非矣', '未矣'는 모두가 현재 '안디'로 읽히고 명사문 부정에 쓰인다는 점에서 특별히 다룰 것이 없다. 그러나 동사문 부정 형식은 사정이 다르다. 우선 동사문 부정 형식은 '안ᄃᆞᆯ(不多, 非多)', '안ᄃᆞᆨ(不ㅅ, 未ㅅ)', '아니(未ㅣ)'로 나뉘어 읽히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논의에서 이것들이 동사문 부정 형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있지만, 기능상 어떤 차이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이들 동사문 부정 형식들이 어떤 차이를 지니는지 논의하기로 한다.

5) 본고에서는 '용언문 부정' 대신에 '동사문 부정'이라는 용어를 쓴다. '용언'에는 '동사, 형용사'가 속하는데, 석독구결 자료에서 동사와 형용사가 부정법을 실현하는 방식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해서 석독구결의 부정은 '명사문 부정'과 '동사문 부정'으로 나뉜다고 보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형용사는 단형에서는 '동사문 부정'의 형식을 취하지만, 장형에서는 '명사문' 부정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처럼 '동사문 부정'과 '명사문 부정'으로 구분하면서도 논의를 진행하면서 기존 연구와 관련지어 언급하거나 할 때는 편의상 '용언문 부정'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할 것이다.

2.2. 不

석독구결 자료에서 '不'은 '不矣', '不ㅣ', '不多', '不ハ'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1) 가. [於]第一義ぇ十 而ぁ 二 不矣ㄱのぁ 故ノㅣ分//第一義에 二가 아닌 때문이며 <舊仁 15:19-20>

나. 世間ㄱ 一分 異ンㄱ 不矣ㅣㄱ矣 譬入ㄱ 空谷ぇヒ 響 如ぇンぇ//世間은 하나이며 異하지 않은 것이 비유하면 빈 골짜기의 메아리 같아서 <金光 13:14-15)

다. 思議ノ☆ 可ヒンㄱ 不矣分 度量ノ☆ 可ヒンㄱ 不矣ㅣロㄱ 唯ハ 佛人 與ヒ 佛人ㅣニぇ 斯ㅣ 事し 乃ぇ 知ニ☆ヒㅣ//생각하고 의논함 직하지도 않으며 (깊이) 헤아림 직하지도 않으니 <舊仁 11:23-24>

'不矣'의 경우에는 석독구결에서 두 가지로 나뉘어 쓰인다. 하나는 '체언+不矣'이다. 다른 하나는 '형용사+-ㄱ+不矣'의 방식이다. (1가)에서는 수사 '二'를 부정하고 있다. (1나)에서는 형용사인 '異ンー'에 '-ㄱ'이 결합되어 피부정사가 되고, '不矣'가 부정사로 나타나고 있다. (1다)에서는 'ノ☆ 可ヒンー' 뒤에 동명사어미 '-ㄱ'이 결합되고, 뒤에 '不矣'가 나오고 있다. 한편, 석독구결에서 'ノ☆ 應ヒンー'의 부정 형식도 뒤에 동명사어미 '-ㄱ'이 결합되고, 뒤에 '不矣'가 나온다. 이것들은 묶어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동안 'ノ☆ 可(應)ヒンー'는 그 독법이나 문법적 범주가 관심이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다.[6] 본고에서는 석독구결 부

6) 석독구결 자료에 나오는 '-☆ 可(應)ヒンー' 또는 '☆ [可(應)]ヒㅣ'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독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① 남풍현(1999)에서는 '-☆ヒㅣ'가 '-☆ 應ヒンー'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근거로 '應ヒ'의 '應'은 不讀字로 보고 '-☆ 應ヒンー'을 '음ㅅ다'로 읽었다. 반면에 '-☆ 可ヒンー'는 '-음 짓ᄒᆞ-'로 읽었다. ② 이승재(1995)에서는 '-☆ 應ヒンー'는 '-음 맞ᄒᆞ-'로 읽고, '-☆

정문의 양상을 볼 때, 'ノ ㅎ 可(應)ヒン-'의 '可(應)ヒン-'는 그 독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문법적 범주는 형용사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다)에서 볼 수 있듯이, 'ノ ㅎ 可(應)ヒン-' 뒤에서는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명사문 부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ノ ㅎ 可(應)ヒン-'의 앞에 나오는 '思議'나 '度量'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ノ ㅎ 可(應)ヒン-'가 형용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다)의 예문이 명사문 부정의 형식을 취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어에서 '思議ン-'나 '度量ン-'는 동사이다.

다음으로 '不多'이 쓰인 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가. 利養ㅗ 恭敬ㅗ 稱譽ㅗノ尸し 爲ンロ尸丁ㅋ尸 不多ンヨンア
矣ㅣ <瑜伽 04:15-19>
나. 第四心ㅣ 退轉ンア 不多ンムフㅅ <金光 02:05>

'不多'로 현토될 때에는 대체적으로 '동사+-尸+不多ン-'의 방식으로 실현된다. 이 형식은 남풍현(1976)에서부터 동사문 부정으로 다루어져 왔다. 조은주(2001, 2002)에서 기술한 바 있는 것처럼 '-尸' 없이 '동사 어간+부정사'의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때로는 '不多ン-'가 아닌 '不ン-'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華嚴經 계통의 문헌인 『華嚴經』, 『華嚴經疏』에서는 '不ン-'로만 나타난다. 이것은 華嚴經 계통의 문헌이 지닌 표기법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可ヒン-'는 '-음 짓ᄒᆞ-'로 읽었다. ③ 박진호(1998), 장윤희(2001)에서는 '-ㅎ 應ヒン'와 '-ㅎ 可ヒン' 둘 다 '-음 짓ᄒᆞ'로 읽었다.

이 중 장윤희(2001)는 '-ㅎ 可(應)ヒン-'를 비교적 자세히 논의된 바 있다. 장윤희(2001)에서는 '-ㅎ 應ヒン-'와 '-ㅎ 可ヒン-'는 석독구결에서 별개의 형태가 아니라 석독구결 단계에서 '*-음 짓ᄒᆞ-'라는 단일형이 존재했으며 그 의미가 '應'이나 '可'를 모두 표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ㅎ [應]ヒㅣ'는 '음 짓ᄒᆞ-'의 수의적 생략으로 보았다.

(3) 가. 五 淨信し 遠離ソㄱ入し 由ミ 常リ 修 能 不ハンカ <瑜伽 10:21-22>

나. 無相ミ十 正思惟ソミ 修得自在ㅿㄱ入ㅁ 故カ 諸煩惱行ヲ 動令リ尸 能矣 不ハノヨナㄱ入ㅁ 故ノ 是故ㅁ 八地し 說尸 名下 不動地ㅗ ノヨニカ <金光 07:11-12>

(3)에서 분포를 보면, '不ハ'의 앞에는 동사가 나타난다. 문헌상으로는 『瑜伽師地論』과 『金光明經』에만 나타나고 있다. 특히 『瑜伽師地論』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다. (3나)에서는 '동사+-尸' 뒤에 '不ハ'이 쓰이고 있다. '동사+-ㄱ' 뒤에 '不ハ'이 나타나는 형식은 『金光明經』에 1회 보인다. 분포를 볼 때, '不ㅊ'과 '不ハ'은 둘 다 동사문 부정에 쓰이고 있다. 南豊鉉(1996b:243)에서는 '不ハ'이 동사문 부정과 명사문 부정에 모두 쓰여 '不ㅊ'과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不ハ'이 명사문 부정에 쓰인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동사문 부정에 쓰이는 두 형식이 기능상 어떤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

다음으로는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4) 가. 又 [於]所治ヒ 現行法ヒ 中ミ十 心ミ十 染着 不ㅊソミホ 速リ 斷滅ソ [令]リき//또 다스릴 바 현행법의 가운데에서 마음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아서 빨리 斷滅하게 하며 <瑜伽 12:19-21>

나. 一十ㄱ 斷し 樂尸 不ㅊソ个ヒ 同梵行者し 伴 [爲]ミノヒヒ 過失 [有]ㅛカ//첫째는, 끊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同梵行者를 벗 삼은 過失이 있으며 <瑜伽 13:08-09>

다. 無上尊ㄱ 法眼ㅁ 不思議義乙 見ニカ 能カ 一法ヤカ 生リ尸 不ㅊソき 亦 一法ヤカ 滅尸 不ㅊソきソニㄱ 平等見リニㄱ入し 爲ニㄱ入ㅁ 故ノ//無上尊은 法眼으로 不思議義를 보시며 能히 한 法만 내지 않고 또 한 法만 멸하지 않는 평등한 소

견이시므로 <금광 13:05-07>

(5) 가. 諸煩惱行ㅋ 動 令ㅣ尸 能ㅊ 不ㅅ丿ㅈナㄱㅅㅠ 故ㅅ 是故ㅠ 八地ㄴ 說尸 名ㅜ 不動地ㅗ ㅅㅈㄴㅋ//모든 煩惱行가 움직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八地를 이름하여 不動地라고 할 것이며 <金光 07:11-12>

나. 此 障ㅎㄴ 由ㅋ [於]一切種ㅋ十 出離 能 不ㅅㄴㅋ//이 障ㅎ를 말미암아 온갖 것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瑜伽 08:8-9>

다. 四 後後日ㄴ 推ㄴㅎ 餘時ㄴ 顧待ㄴㅎㄴㅋ 不死尋ㄴ 隨ㅅ 熾然ㅎ 勤ㄷ 方便ㄴ 修 能 不ㅅㄴㅋㄴ尸ㅊㅣ//넷째는 뒷날로 미루며 다른 때를 기다리면서 不死尋을 따라 熾然히 부지런히 方便을 닦을 수 없다. <瑜伽 09:15-16>

라. 五 淨信ㄴ 遠離ㄴㄱㅅㄴ 由ㅋ 常ㅣ 修 能 不ㅅㄴㅋ//다섯째는 깨끗한 믿음을 遠離한 것을 말미암아 항상 닦을 수 없으며 <瑜伽 10:21-22>

(4)는 '不ㅎ'에 의한 장형부정이고 (5)는 '不ㅅ'에 의한 장형부정이다. 분포를 볼 때, (5)에서 '不ㅅ' 앞에는 '能'이 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해당 경전의 원문을 보면 '不能令動'(5가), '不能出離'(5나), '不能熾然勤修方便'(5다), '不能常修'(5라)로 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한자어 '不能'을 포함하고 있다. 한문에서 '不能'은 능력부정의 표현으로서 현대국어로 옮기자면, '아니'와 '못' 두 가지 중 '못'에 가깝다.[7]

---

7) 현대국어에서는 '아니'와 '못'의 의미 차이가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단순부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이고, '능력부정'에 해당하는 '못'이다. '아니'와 '못'을 '단순부정'과 '능력부정'으로 부르는 것은 본고의 논의를 위해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용어를 편의상 받아들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나타나는 '안ᄃᆞᆯ', '안ᄃᆞᆨ', '不能이디'에 해당하는 것도 현대국어처럼 '단순부정'과 '능력부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단순부정'과 '능력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단순부정'은 기본적으로 가치중립적일 때 쓰이는 것이면서 동시에 주체의 '의도'에 관련되어 쓰이는 것을 일컫는다. '능력부정'은

(4다)에서는 '不ᄒᆞ'에 '能'이 선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전 원문의 문맥을 보면 이때의 '不能'은 능력부정으로 볼 수 없다. 해당 원문 '無上尊法眼見不思議不能生一法亦不滅一法'에서 서술어의 주체가 無上尊, 즉 부처이다. 불경 텍스트에서 부처는 못하는 것이 없는 절대적 존재로 묘사된다. 불경에서 부처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이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다. 주체의 의도와 관련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4다)의 '不能生一法'은 [不能[生一法]]이 아니라 [不[能生一法]]으로 분석해야 하며, '能'은 부사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不ㅅ'으로 현토되었지만 원문에는 '不能'이 쓰이지 않은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6) 가. 貪欲ᄆᆞᆷ 覆ᄂᆞᆫ 衆生ᄀᆞ 愚ᄂᆞᆺᄀᆞ 冥暗ᄂᆞᄒᆞᄀᆞᄉᆞᆷ 見ᄆᆞ 不ㅅᄂᆞᆫ ᄒᆞᄂᆞᆯᄀᆞᄅᆞᆯᄉᆡ ᄂᆞᄆᆞᆫᄃᆡ//貪欲으로 덮인 衆生은 어리석고 어두워서 보지 못할 것이다 하시다. <金光 15:01-02>

나. 又 [於]飮食ᄋᆞᆫᄒᆞ 知量 不ㅅᄂᆞᆫᄀᆞᄉᆞᆷ 故ᄂᆞ 身不調適ᄂᆞᄆᆞᆫᄉᆞᆷ// 또 음식에서 量을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몸이 調適하지 않는 것과 <瑜伽 10:08-09>

(6가)에서는 주체가 衆生이다. 여기에서의 衆生들은 진리를 일부러 보지 '아니' 하는 것이 아니라 貪慾에 쌓여 어리석고 우매하게 되었기 때문에(능력이 부족하여) 보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6나)는 용언 '知'에 대한 부정이다. 현대국어에서 단순 부정 '아니'의 제약 중 하나가 '알다, 깨닫다, 깨우치다' 등과 같은 인지 동사류에 쓰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은 의미적인 것이기 때문에 석독구결의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6나)의 '不ㅅ'은 능력부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할 수 없음' 또는 '미치지 못함'의 뜻을 가지고 쓰이는 것을 일컫게 된다.

(7) 此 障导ㄴ 由ㅣ [於]一切種ㅣ十 出離 能 不ㅎㄴᄉᆞ 設ㅎ 得ᄭᅩ 出家ㄴㅣᄃᆡ 此 尋思ᄆᆞᆫ[之] 擾動ㄴᆞᆨ 所ㄴ 由ㅣ 障导ㄴ 爲ᄀᆞᄅᆞᄆᆞᆫ 故ㄴᆞ 喜樂ㄴ 生ᄆᆞ 不ᄒᆞᄂᆞᆨᄀᆞᄂᆞ//이 障导를 말미암아 온갖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비록 능히 出家하여도 이 尋思로 擾動하는 바를 말미암아 障导가 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내지 못한다. <瑜伽 08:08-10>

(7)에서는 연결어미 '-ᄉᆞ'로 두 개의 절이 나열되고 있는데, 전절에서는 '不ㅎ-'이, 후절에서는 '不ᄒᆞ-'이 쓰이고 있다. 원문에서는 '不能'으로 나타나 '能'이 동사 뒤에 후행한 전절에서는 '不'에 ㅎ'이 현토되었으나 그렇지 않은 후절에서는 'ᄒᆞ'이 현토되고 있다. 의미를 고려할 때는 후절도 능력부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일 것 같다. 그런 점에서 후절에 나오는 'ᄒᆞ'은 석독구결에서는 예외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전절에서는 'ㅎ'이 쓰이고 후절에서는 'ᄒᆞ'이 쓰였을까? 현재로서는 이 의문에 명쾌하기 답하기 어렵다. 다만 현토자가 부사 '能'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能'이 쓰인 곳에서는 'ㅎ'을 표기하고 '能'이 쓰이지 않은 곳에서는 'ᄒᆞ'을 표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언급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瑜伽師地論』과 『金光明經』에서는 '不能'이 '동사어간+(-ᄆᆞ)+能(ᄉᆞᆨ)+不ㅎ-'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과 대비하여 華嚴經 계통에서는 '不能'이 '동사어간+(-ᄆᆞ)+不能ㅣᄉᆞᆨ+ㄴㅣ-'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8) 가. 十方ㄷ 一切 聲聞ㅣ 緣覺ㅣㄴᄉᆞᄉᆞᄅᆞ 動ᄆᆞ 不能ㅣᄉᆞᆨㄴᆞᄆᆞ 所ㅣᄉᆞᄂᆞᄉᆞᄃᆡㅣ//十方의 一切 聲聞과 緣覺과 하는 것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華嚴 08:17-18>

나. 一切衆生ᄀᆞ [於]生死ㄷ 中ㅣ十ㄴㅣ 有多聞ㄴᆞᆨ 無ㅁᄂᆞᄀᆞ 此ㅣ 一切法ㄴ 了知ᄆᆞ 不ㄴ能ㅣᄉᆞᆨㄴᆞᄐᆞᄀᆞㅣㅣᄆᆞ//모든 중생은 생사의 가운데에 있어 많이 들음이 없으므로 이런 일체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華疏 08:20-09:01>

다. 十方ヒ 一切 諸ㄱ 如來ㅣ 悉ㅇ 共ヒ 俤揚ソニヲ 能 盡ㅇ尸 不(ノ)ㅣ矣ソニロしカヒㅣ//十方의 一切 모든 如來들께서 다 함께 俤揚하시나 能히 다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華嚴 09:07>

위의 예는 華嚴經 계통의 자료에서 나온 것들이다.[8] (8가)와 (8나)는 『瑜伽師地論』과 『金光明經』에서는 '能(矣) 不ㅅ'이 기대되는 곳이다. 그런데 華嚴經 계통의 문헌에서는 이것이 '不ノ能ㅣ矣'로 나타난다. 특히 (8나)에서는 인지동사 '知'가 나타나 능력부정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不ノ能ㅣ矣'는 능력부정의 예로 들 수가 있다.

(8다)는 이제까지 '不ㅣ矣'의 예로 다루어져 왔던 것인데, 이 '不ㅣ矣'는 '不ノ能ㅣ矣'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이 예문 역시도 원문에서 '不能'으로 나타난다. 피부정사 앞에 부사 '能'을 새기고 있기는 하지만 '不能ㅣ矣'와 마찬가지로 능력부정으로 쓰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원문에 토를 잘못 기입했을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토가 기입된 위치가 '不能'에서 다른 토들보다 '不'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能'에 달린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不ㅣ矣'의 '不'에는 글자의 밑에 'ノ'가 현토되어 있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이제까지 주목하지 않았는데, '不ㅣ矣'는 '不ノ能ㅣ矣'를 잘못 본 것임을 잘 보여준다.

(9) 未來ㅇ十 是礙ㅣ 更ㅇ 生ㄱ 不ハソ尸乙 更ㅇ 生 不ハ丶ㅣ仝ヒ 智乙 得尸 未ハソトㄱ刀 無明ㅣ 因 [爲]ㅣ尸入乙ソヲ皿//未來에

8) (가)와 (다)의 예는 모두 조은주(2001)에서 가져온 것이다. 현대어역도 그대로 가져왔다. 그런데 여기서의 현대어역이 본고에서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예문들을 무작위로 뽑아도 본고의 주장과 부합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리라고 본다.

이 막힘이 다시 생기지 않는 것을 다시 생기지 않게 하는 智慧를 얻지 못하는 것도 無明이 原因이 되어서 <金光 08:08-10>

(9)에서는 동사 '生'에 '-ㄱ'이 결합하여 피부정사가 되고 있다. '막힘'이 생기고 생기지 않는 것은 주체의 능력과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 '生+-ㄱ+ 不ㅎㄴ-'는 능력부정보다는 단순부정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 예문에서 '得+-ㄹ+未ㅎ'이 능력부정으로 해석되는 것과 대비과 된다. 그동안 단순히 '不ㅎ'은 피부정사로 '-ㄱ', '-ㄹ'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만 기술되었을 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본고에서는 그 원인을 '동사+-ㄱ+ 不ㅎㄴ-'는 단순부정으로, '동사+-ㄹ+ 不ㅎㄴ-'은 능력부정으로 쓰이는 데서 찾고자 한다. 이러한 설명의 연장선상에서 이 예문의 '生 不ㅎᄉᆞᄇᆡ ᄉᆞᆺ七'의 '生'은 동명사어미 '-ㄱ'이 생략된 것으로 보기로 한다. 단순부정의 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不ᄎᆞ'에 의한 단형부정의 예이다.

(10) 가. 量ㅣ 無ㄱ 佛ㅣ 華上ᄋᆞ+ 坐ᄒᆞᄉᆞ 十方ᄋᆞ+ 示現ᄒᆞᄆᆞᄆᆞᆷ 不ᄎᆞ 徧ᄉᆞᆡᄒᆞᄀᆞ 靡ᄃᆡᄋᆞᄋᆞᄒᆞ 悉ᄋᆞ 能ᄒᆞᆫ 諸ㄱ 衆生ᄂᆞ 調伏ᄉᆞᄇᆞᄒᆞᄎᆞᄀᆞᆫ// 無量佛이 꽃 위에 앉으시어 十方에 示現하되 두루 하지 않음이 없어 다 能히 모든 衆生을 調伏할 것이며 <華嚴 13:02-03>

나. 衆生ᄋᆞ 形相ㄱ 各ᄀᆞ 不ᄎᆞ 同ㅣᄀᆞᄀᆞᆫ//衆生의 形相은 각각 같지 않으며 <華嚴 15:01>

(10가)와 (10나)는 모두 단순부정의 예이다. (10가)에서의 주체인 '無量佛'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人物이다. (10나)는 형용사가 피부정사가 된다는 점에서 단순부정일 수밖에 없다. 형용사는 능력부정으로 쓰일 수가 없다. 동사는 움직임이나 변화의 가

능성 곧 할 수 있음과 할 수 없음이 구분될 수 있는 반면에 형용사들이 드러내는 상태성에는 그러한 변화 가능성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 유의하면 비록 '華嚴經'에서만 단형부정이 3회가 나타나 그 빈도가 적기는 하지만, '不ㅅ'에 의한 부정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설명 가능하다. '華嚴經'에 나타나는 세 예가 모두 단순부정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형용사의 특성상 단형부정 '不ㅅ'과 결합하는 예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11) 가. 戒ㄴ 受ᄉᆞᆷ 學ᄉᆞᆷᄉᆞᆫᄀᆞ 時ㅣ ᄒᆞᆫᄀᆞ 當 願 衆生 善ᄒᆞᆫ [於]戒ㄴ 學ᄉᆞᆷᄋᆞᄒᆞᆫ 衆ᄀᆞ 惡ㄴ 作ᄆᆞ 不ᄉᆞᄫᆞᆫ <華嚴 03:17>
나. 醜陋人ㄱ 見 當願衆生 [於]不善ᄉᆞᄫᆞᆫ 事ᄋᆞᆫ ᄒᆞᆫ 樂著ㄱ 生ᄒᆞᆫᄆᆞ 不ᄉᆞᄫᆞᆫ <華嚴 06:07-12>

(11)은 부정 명령법의 예이다. 후기 중세국어의 부정 명령법은 주로 '동사+-디 말-'의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비해서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동사+-ᄆᆞ+不ᄉᆞ(*안ᄃᆞᆯᄒᆞ)-'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장윤희(2002:102)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어 부정법의 중요한 역사적 변화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석독구결 자료에서 명령법의 부정은 어떤 이유로 '不ᄉᆞ'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 이유를 일반언어학적으로 볼 때, 명령법의 부정은 단순부정을 사용하는 데서 찾고자 한다. 현대국어에서 명령법 부정에 쓰이는 '말다'는 일반적으로 단순부정인 <아니+하다>를 대치하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9] 그러므로 석독구결 자료에서도 명령법의 부정에 단순부정인 '안ᄃᆞᆯ'이 사용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하겠다.

9) 고영근(1987)에서는 '않다'(<아니하다)가 명령형과 청유형 접사 '어라, 자' 앞에서 음성상의 유사성이 없는 어기 '말'로 교체되는 것을 보충법(suppletion)으로 보았다.

2.3. 未

'未'에 의한 부정은 석독구결 자료에서 모두 33회 출현한다. '未ㅅ'이 14회, '未ㅐ'가 17회, '未矣', '未多'이 1회이다. 석독구결에서 '未'는 '未矣' 1회를 빼고는 모두 동사문 부정으로 쓰였다. 그런데 용례의 관찰과 관련하여 주의를 끄는 것은 '未'에 '多'이 현토된 예가 1회 출현한다는 사실이다. '안둘'은 용언 부정에 가장 많이 쓰인 부정사인데 '未'에 '多'이 거의 현토되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이는 '未'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을 지녔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未'의 예이다.

(12) 가. 若 三摩地ㄴ 得ㅎㄱㅗ 而ㄱ 圓滿 未ㅐㅎ 亦 自在 未ㅐㅅㅎㅅㄱㄱ <瑜伽 24:06-07>

나. 是 如ㅊ 第五心ㅐ 上ㄷ 種種ㄷ 功德法藏ㅎ十 猶ㅐ 滿足ㅅㄲ 未ㅐㅅㄷㄴ 是ㄴ 名下 禪波羅蜜因ㅗㄴㅋㅎ <金光 02:07-08>

위의 예문들은 '未ㅐ'가 쓰인 것들이다. '未ㅐ'로 현토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동사+-ㄲ+未ㅐㅅ'의 방식으로 실현된다.[10] '未ㅐ'는 '不多'처럼 동명사어미 '-ㄲ'이 생략되어 쓰이는 빈도가 적고 '未ㅐㅅ-'가 아닌 '未ㅐ-'로만 나타나는 일도 거의 없다. 특히 華嚴經 계통의 문헌에서는 '華嚴經'과 '華嚴經疏' 합해서 단지 3회가 출현하는데 '동사+-ㄲ+未ㅐㅅ'로 형식을 모두 갖추어 적었다. '不多ㅅ-'는 '不ㅅ-'로만 나타났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13) 가. 二 [於]惡道生ㅎ十 止息 能 未ㅎㅅㅋ 三 [於]在家衆ㅋ十ㅅㄱ 諸 无閒業ㄴ 偃塞 能 未ㅎㅅㅋ <瑜伽 21:17-18>

10) 이는 조은주(2001)에서 언급한 바 있다.

나. 說法無量ㅗ 名味句無量ㅗ 智慧分別無量ㅗ ㅅ尸乙 攝持尸 能 未ㅅㅅㅏㄱㄱㅏ 無明ㅣㅣ 因 [爲]ㅣㅣ尸ㅅ乙ㅅㅅㅎ <金光 08:04-05>

(13)에서는 '未ㅅ'이 쓰이고 있다. '未ㅅ'의 앞에는 동사가 나타난다. 분포를 보면, '不ㅅ'과 마찬가지로, '金光明經'과 '瑜伽師地論'에만 출현하고 있다. 그리고 '不ㅅ'과 달리 '동사+-ㄱ'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예는 보이지 않는다.

'未ㅣ'와 '未ㅅ'은 동사문 부정에 쓰이고 있다. 둘 다 동사문 부정인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4) 가. 當ㅅ 知ㅎㅣ 淸淨 不相應ㅅㅅㄱ 過患ㅇㅓ 五種 有ㅅㅅㄱㅣㅣㄱㄱㅜ 一ㅓㄱ [於]邊地生ㅇㅓ 止息 能 未ㅅㅅㅎ 二 [於]惡道生ㅇㅓ 止息 能 未ㅅㅅㅎ 三 [於]在家衆ㅋㅓㅅㅅㄱ 諸 无閒業ㄴ 偃塞 能 未ㅅㅅㅎ//반드시 알지어다. 淸淨不相應한 過患에 五種이 있는 것이다. 첫째는 邊地生에 (대해) 止息하지 못하며, 둘째는 惡道生에 대해 止息하지 못하며 셋째는 在家衆에게 있는 모든 无閒業을 偃塞하지 못하며 <瑜伽 21:16-19>

나. 四 [於]出家衆ㅋㅓㅅㅅㄱ 量 无ㅅㅅㄱ 見趣ㄴ 不相應 未ㅅㅅㅎ 五 世間道ㄴ 由ㅇㅓ 乃ㅣ 有頂ㄷ 若定人 若生人ㅇㅓㅅ 至ㅣㅅㅅㅎ ㄷ人 [雖]ㅐ 而ㄱ [於]初後際 無ㅎ 生死流轉ㅅㅎㅓㅅ 邊際ㄴ 作 未ㅅㅅㅎㅅㅅ尸矢ㅣ//넷째는 出家衆에 있는 量 없는 見趣를 不相應하지 못하며 다섯째는 비록 世間道로 말미암아 有頂의 定과 生에 이르기까지는 하였어도 처음과 나중이 없이 生死流轉하는 것에 (대해) 邊際를 짓지 못하는 것이다. <瑜伽 21:19-23>

(15) 가. 說法無量ㅗ 名味句無量ㅗ 智慧分別無量ㅗ ㅅ尸乙 攝持尸 能 未ㅅㅅㅏㄱㄱㅏ 無明ㅣㅣ 因 [爲]ㅣㅣ尸ㅅ乙ㅅㅅㅎ// 說法無量과 名味句無量과 智慧分別無量이라고 하는 것을 能히 攝持하지 못하는 것은 無明이 因이 되며 <金光 08:04-05>

나. 四無礙辯ㅣ十 得ㅣ亦 自在 未ㅅ하ᄂᆞᆫ가 無明ㅣ 因 [爲]ㅣ尸 ㅅ乙ㅅᄒᆞᆫᄃᆡ//四無礙辯에 능히 自在하지 못하는 것도 無明이 因이 되기 때문에 <金光 08:04-06>

위의 예문들에서 (14가)와 (15가)는 모두 원문에 '未能'이 쓰인 것들이다. '不能'이 능력부정으로 쓰였던 것처럼 '未能'도 능력부정에 쓰이고 있다. '未'에는 구결자 'ㅅ'이 현토되고 있다. 한문에서 '未能'은 '不能'과 마찬가지로 능력부정의 표현으로 쓰인다. 이 두 예문에서는 피부정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주체들이 '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한다. (14나)와 (15나)도 모두 능력 부정의 '未ㅅ'이 쓰인 예들이다. 이 예문들은 각각 (14가), (15가)에 이어져 나오는 것들이다.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未ㅅ'은 모두가 능력부정으로 쓰인다.

다음은 '未ㅣ'의 예이다.

(16) 가. 請問ㄴ 依ᄒᆞᆫㅅᄆᆞᆫ 故ㅅ 昔尸 聞白尸 未ㅣᄒᆞᆫㅌᆡㅅᄀᆞ 甚深 法義ㄴ 聞ㅁ//請問을 의지하므로 예전에 듣지 못했던 甚深한 法義를 들으며 <瑜伽 07:03-04>

나. 衆生ㄱ 資身ㅌ 具ㄴ 有ㅐ尸 未ㅣㅅᄀᆞㅅㄴ 見ㅁㅏㄱ 是ㅣㅌᄒᆞᆫᄀᆞ 時十 菩薩ㄱ 工匠ㅣ尸 爲ㅅㄴᄒᆞᆫㅁ//衆生이 資身할 도구를 갖지 못한 것을 보고서는 이런 때에 菩薩은 工匠이 되며 <華嚴 19:12-13>

나'. 謂ㄱ [於]四沙門果ㅣ十 能ㅁ 隨ㅅ 證ㅅ尸 所ㄴ [有]ㅐ尸 未ㅅᄒᆞᆫㅅᄆᆞᆫ 故ㅅ 猶ㅣ 惡趣苦ㅋ 隨逐ㅅ尸 所ㄴ 爲ㅅㅁ//이른바 四沙門果에서 능히 좇아 證하는 바를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惡趣苦의 隨逐하는 바를 입게 되며 <瑜伽 18:02-04>

(16)의 '未ㅣ'가 나타나는 예문도 모두 능력부정으로 해석되는 것들이

다. (16가)에서 '甚深 法義'는 수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듣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듣고 싶어도 수행이 깊지 못하면 들을 수가 없다. 결국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외부 요인 때문에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16나)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衆生'들이 資身할 도구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요인으로 인해 도구를 가지지 못한 것이다. 이 경우 능력부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것은 '瑜伽師地論'에 나와 있는 (16나)와 비교를 통해서 뒷받침된다. '瑜伽師地論'에서는 '未ㅅ'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瑜伽師地論'에서는 '未ㅅ'이 능력부정에 쓰인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또한 여기서 문헌의 계통에 따라 구결자의 현토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華嚴經' 계통의 문헌에서는 구결자 'ㅅ'이 '不'과 '未'에 현토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瑜伽師地論』에서는 '未'에 'ㅅ'이 현토되기도 하지만, 'ㅣ'가 현토되기도 한다. 그런데 'ㅅ'과 'ㅣ'가 어떤 차이를 두고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둘 다 능력부정으로 쓰이고 있다. 다만 '未能'에 구결자가 현토된 경우에는 'ㅅ'이라는 사실은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이것은 능력부정에 쓰이는 부정사는 'ㅅ'이 더 전형적이어서 생긴 현상이 아닌가 한다.

(17) 亦ンㄱ {於}彼ラ十 而ゃ 善根し 退尸 不ンカ 常ㅣ 勤七 修行ノ 尸ム 曾ハ𠀋刀 廢捨尸 未多ンナ仝ミ//또한 저기에 善根을 물리치지 않고 恒常 부지런히 修行하되 조금도 廢捨하지 않으니<華跋 13: 16-17>

위의 예에서는 '未多'이 쓰이고 있다. 여기서의 '-尸 未多ン-'는 현대어를 옮길 경우, '-지 않-'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이 예문의 주어인 '菩薩'은 수행이 이루어진 존재이므로 주체의 내적인 의지에 의해서 廢捨하는 행동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18) 名下 圓滿ㅅ ᄀᆞᄐᆞ 淸淨 鮮白ㅅ ᄀᆞᆮᄀᆞ 丁ㅅ ᄉᆞ 未矣ㅁ//이름하여 圓滿하여서 淸淨 鮮白하다 할 것이 아니라 <瑜伽 16:9-12>

(18)의 '未矣'는 명사문 부정으로 쓰이고 있다. '未矣'에 앞에 나오는 'ᄉᆞ'는 대체적으로 '의존명사+조사' 또는 '의존명사+조사+의존명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ᄉᆞ'를 어떻게 보든 '未矣'는 명사문 부정에 쓰인 셈이 된다.

2.4. 非

'非'는 한문에서 명사문 부정에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 그 의미는 '~이 아니다'이다.[11] 이를 통해 석독구결에서도 '非'가 주로 명사문 부정에 쓰였음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非'에는 대개 구결자 '矣'가 현토되고 있다. 그런데 '非'에는 '矣'만 현토되는 것은 아니다. '多', 'ㅣ矣'도 각각 1회씩 현토되어 쓰인다. 특히 '多'이 현토된 '非多'은 동사문 부정에 쓰인다.

다음은 '非矣'의 예이다.

(19) 가. 空法ㅅ 四大法ㅅ 心法ㅅ 色法ㅅ 如ㅣㅅᄀᆞㅣㄱᆞ 相續假法ㄱ 一 非矣ᄒᆞ 異 非矣ᄒᆞㅅᄂᆞㅣ//空法과 四大法과 心法과 色法과 같은 것이며 相續假法은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舊仁14:06-07>

나. 是 [如]ᄒᆞㅅᄀᆞ 五因ㄱ 當ㅅ 知ㄱᆞㅣ 諦現觀ㄷ 逆次因ㄴ 依ᄒᆞ 說ㅅᄀᆞㅣㄱᆞㅗ 順次因ㅱㅅᄂᆞㄷ 非矣ㅣㄱᆞㄱᆞ丁//이와 같은 五因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성체현관의 逆次因을 말미암아 말한 것이지 順次의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다. <瑜伽 23:10-11>

---

11) 현대국어에서 접두사로 쓰일 때도 '非'는 '非現實的', '非合理的'과 같이 불완전한 한자 어기를 접미사 '-적'으로 명사화한 후에 결합된다.

(19가)에서는 '非矣'가 수사 '一'과 형용사 '異'를 피부정사로 취하고 있다. (19나)에서는 피부정사가 의존명사 'ᄇᆞ'를 포함하는 명사구가 된다. 이처럼 '非矣'는 주로 명사문 부정에 쓰인다.

다음은 '非多'의 예이다.

(20) 가. ᄆᆞᄋᆞᆫ 常ᄅᆡ 說法ᄒᆞ샤ᄃᆡ 無義ᄒᆞᆫ ᄃᆞᆺ ᄒᆞ시ᄂᆞᆫᄃᆡ 非多ᄒᆞᆫᄃᆞᆯ 心智寂滅ᄒᆞᆫ ᄃᆞᆺ 緣 無ᄒᆞᆯᄊᆡ 照ᄒᆞᆫᄃᆞᆺ ᄒᆞ시ᄆᆞᆫ//ᄆᆞᅀᆞᆷ(입으로) 언제나 說法하시되 無義한 것을 하지 않으시며 心智가 寂滅하시어 緣(인연) 없이 비추시며 <舊仁 11:10>

나. 卽ᄀᆞ 是 [如]ᄒᆞ샤ᄂᆞᆫ 奢摩他ᄅᆞᆯ [以]ᄒᆞᆫᄃᆞᆺ 入ᄆᆞᆫ 故ᄂᆞᆫ 已ᄒᆞ시 謂ᄒᆞᄆᆞ 一切 所作ᄒᆞ 已辦ᄒᆞᆫᄃᆞᆺ ᄒᆞᄂᆞᆫᄃᆞᆯ ᄒᆞᄆᆞᆯ ᄒᆡᆫᄃᆞᆺ 非多ᄒᆞᆫᄃᆞᆫ 亦 他ᄅᆞ 向ᄒᆞ 已ᄒᆞ 證ᄒᆞᄂᆞᆫᄃᆞᆯ 所ᄒᆞ 說ᄃᆞᆺ 不多ᄒᆞᆫᄃᆞᆫᄒᆞᄂᆞᆫᄃᆞᆺᄒᆞᄂᆞᆫᄒᆞᆺᄒᆞᄒᆞᆷ//곧 이와 같은 奢摩他를 쓴 까닭으로 자기를 일러 "一切 所作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또 남을 향하여 자기가 證한 바를 말하지도 않는 것이라서 <瑜伽 19:08-10>

(20)의 예문에서는 '非多'이 단순부정의 기능으로 쓰이고 있다. (20가)에서 주어인 '法王'은 사람 가운데 나무일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므로 자신의 의지대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20나)에서는 가치중립적인 경우에 '非多'이 쓰이고 있다. 현대어로는 '안'에 대응된다. (20나)에서는 특히 나열의 연결어미 'ᄒᆞᆫᄃᆞᆺ'에 의해서 나열되고 있는데, 후절에서는 '不多'이 쓰여 '非多'의 기능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다음은 '非ᄅᆡ矣'의 유일한 예로 이제까지 거론되어 온 것이다.

(21) 是ᄅᆡ 因 無ᄅᆡᄂᆞᆫᄀᆞ 有緣 無ᄅᆡᄂᆞᆫᄇᆞᆫ 非ᄅᆡ矣 [於]佛法僧ᄒᆞᆫᄃᆞᆺ 淨信ᄒᆞ 生ᄅᆡᄒᆞᆯᄊᆡ 是ᄒᆞ 以ᄒᆞᄆᆞᆯᄊᆡ 而ᄆᆞ 廣大心ᄒᆞ 生ᄅᆡᄂᆞᆫᄀᆞᄅᆡᄒᆡ//이것이 因 없이 하며 有緣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승에 깨끗한 믿음을 나타냄으로써 넓고 큰 마음을 내는 것이다.<華嚴 09:10-11>

(21)에서 보면, '非ㄲ矣'는 명사문 부정에 쓰이고 있다. '無ㄲンヒ'의 'ヒ'는 의존명사이다. 그러므로 '非ㄲ矣'와 '不ㄲ矣'를 서로 관련시킬 때는 조심해야 한다. '不ㄲ矣'는 동사문 부정 형식에 쓰이고 '非ㄲ矣'는 명사문 부정 형식에 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이제까지 '非ㄲ矣'와 '不ㄲ矣'를 연결시킨 배경에는 둘 다 '아니디'로 읽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우선 '不ㄲ矣'를 '아니디'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不ㄲ矣'의 '不'에 현토된 'ノ'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ノ'가 유의미한 것이라면 이것을 읽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것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읽지 않고 넘어간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ノ'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마땅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문제 제기만을 하고 넘어간다.

3. 결론

이 논문에서는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한문 부정사와 한문 부정사 각각에 현토된 구결자를 함께 살펴 석독구결 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우선 석독구결 자료에는 명사문 부정 형식과 동사문 부정 형식에 따라 부정사가 다르게 현토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형용사문 부정은 장형부정의 경우에는 명사문 부정을 단형부정의 경우에는 동사문 부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ノ亍 可(應)ヒンー'의 문법적 범주는 형용사와 관련시켜 보아야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동사문 부정 형식은 '단순부정'이냐 '능력부정'이냐에 따라 구별되어 현토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단순부정은 석독구결 자료에서 '동사+(-尸)+不冬(非冬)'의 형식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능력부정'은 『瑜伽師地論』, 『金光明經』과 華嚴經 계통으로 구별되어 실현되었다. 우선 『瑜伽師地論』, 『金光明經』에서는 '동사+(-尸)+不ㅅ(未ㅅ)'의 형식으로 실현되었다. 반면, 華嚴經 계통에서는 '不能ㅣ矣'로 나타났다. 다만 '不ㅅ'의 경우에, 이것이 '단순부정'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때는 동사에 '-ㄱ'이 결합되어 나타났다.

이제까지 논의한 바를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명사문 부정 형식(=단순부정):
  명사(구)+不矣(非矣/未矣), 非ㅣ矣
  형용사+-ㄱ+不矣(非矣/未矣)
동사문 부정 형식:
  단형부정: 단순부정 不冬+동사, 형용사
  장형부정: 단순부정 동사+-尸+不冬(非冬), 동사+-ㄱ+不ㅅ
    능력부정 동사+-尸+不ㅅ(未ㅅ), 未ㅣ, 不能ㅣ矣

이 논문에서는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부정문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다른 차자표기 자료에 나타나는 부정문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다. 어떤 문법 현상이든지 그 문법 현상은 공시적, 통시적인 흐름 속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두, 향찰 등의 다른 차자표기 자료라든지 15세기 이후의 자료와의 연계성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모두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여기에서 미처 논의되지 못했다. 이는 남은 과제로 넘기기로 한다.

참고문헌

高永根(1989), 『國語形態論硏究』, 서울大學校出版部.

김동식(1980), 「현대국어의 부정법의 연구」, 『국어연구』 42, 국어연구회.

_____(1990), 「부정법」,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pp.452~466.

김정아(2001), 「'이-'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통시적 고찰」, 『국어학』 37, pp.309~336.

南豊鉉(1976), 「國語 否定法의 發達」, 『문법연구』 3, pp.55~81.

_____(1996a), 「高麗時代 釋讀口訣 'ㅁ/ㄹ'에 대한 考察」, 『口訣硏究』 1, pp.11 ~44.

_____(1996b), 「『金光明經』 卷三 釋讀口訣에 나타난 ㅁ의 用法에 대하여」, 『이기문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pp.228~251.

_____(1998),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動名詞語尾 '-ㄱ/ㄴ'에 대한 考察」, 『국어학』 28, pp.1~48.

_____(1999), 『『瑜伽師地論』 釋讀口訣의 硏究』, 태학사.

박진호(1997), 「차자표기 자료에 대한 통사론적 검토」, 『새국어생활』 7-4, 국립국어연구원.

_____(1998), 「고대국어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연구원, pp.121~205.

서정수(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송석중(1974), 「동의성 -언어학자의 Frankenstein-」, 『국어학』 2, pp.65~82.

_____(1977), 「'부정의 양상'의 부정적 양상」, 『국어학』 5, pp.45~100.

엄정호(1987), 「장형 부정문에 나타나는 '-지'에 대하여」, 『국어학』 16, pp.645 ~660.

이경우(1983), 「부정소 '아니'와 '못'의 의미」, 『국어교육』 44·45, 국어교육연구회.

이기용(1979), 「두 가지 부정문의 동의성 여부에 대하여」, 『국어학』 8, pp.59~94.

이 용(2003), 「전기 중세국어에 나타난 'ㅣ-'의 성격」, 『제17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84~98.

이승재(1995), 「동명사 어미의 역사적 변화」,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임홍빈(1973), 「부정의 양상」, 『논문집』 5, 서울대 교양과정부, pp.115~140.
_____(1978), 「부정법 논의와 국어의 현실」, 『국어학』 6, pp.185~206.
장윤희(2001), 「중세국어 '-암/엄 직ᄒᆞ-'의 문법사」, 『형태론』 3-1, pp.1~21.
_____(2002),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태학사.
조은주(2001),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부정법 연구」, 『구결연구』 7, 구결학회, pp.135~165.
_____(2002), 「前期 中世國語의 否定法 硏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현대아파트 204-703]
E-mail: leeyonghu@hotmail.com
접수일자: 2003. 07. 10.
게재결정: 2003. 08. 02.

On function of negative markers in Seokdok-Kugyol(釋讀口訣) texts of Koryo dynasty period

Lee, Y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at are function of negative markers(不冬, 不ㅅ etc.) in Seokdok-Kugyol. Firstly, negative markers '不矣, 非矣, 未矣' are used for negation in noun sentences, negative makers '不冬, 不ㅅ, 不能ㅣ矣 etc' are used for negation in long form negation in verb sentences. Secondly, In long form negation in verb sentences, negative markers are differentiate by functions of them. '不冬, 非冬' are used for 단순 negation and '不ㅅ, 未ㅅ, 不能ㅣ矣' are used for 평가 negation. We see '不ㅅ, 未ㅅ' in '瑜伽師地論', '金光明經', and see in '華嚴經', '華嚴經疏'.

*Key words: negation, Seokdok-Kugyal, negative marker